청년일자리·군공항 이전 급선무 현대차 광주공장 완성 첫 시험대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 의미와 과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풀어야 할 광주시 현안 사업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1조원대에 달하는 시 부채 해결, 광주군공항 이전 등이 꼽힌다.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앞세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광주경제를 활성화시켜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오는 200만 광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일자리 창출이 이 당선자의 성공적인 시정 운영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당선인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의 살림을 챙기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등의 난제를 떠안게 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규모는 4조8313억원이며, 이는 전국 8개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액 9조9184억원보다 무려 5조871억원이 적다. 지방선거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이다. 광주시는 민선 6기에 전남 몇 곳을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일각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와 이 당선인,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민선 7기 광주·전남의 가장 시급한 상생 과제로 꼽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이 이끌어낸 현대자동차의 빛그린산단 내 합작회사 설립도 이 당선자가 마무리해야 할 대표적인 사업이다. 새 합작법인은 자산 규모가 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시와 현대차가 각각 1, 2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가 상당 부분을 투자해야 하고, 다른 투자자들도 모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광주공장의 완성'이 이 당선인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개발 문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등도 해결해야 한 현안이다. 특히 민선 4기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건립 반대를 주장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한편, 당내경선에서 이용섭 당선인을 둘러싸고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경찰이 이 당선인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과정과 수사결과에 따른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9

13개월 도정공백 해소 서둘러야 한전공대 입지 확정 등 난제 산적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 의미와 과제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이 가장 서둘러야 할 과제는 이낙연 전 지사의 총리 발탁으로 생긴 13개월여간의 행정공백을 시행착오 없이 최단시간에 메우는 일이다. 도정을 이끌 수장의 공백은 새 사업에 대한 결정장애를 불러왔고, 자연히 전남도 발전은 정체될 수 밖에 없었다.

김 당선인도 이를 의식한 듯 '준비된 전남지사'임을 강조했다. 전남도에서 강진·완도군수, 경제통상국장, 행정부지사를 지내 전남의 문제와 현안, 장·단점을 너무 잘알고 있는 만큼 곧바로 업적 극 대응하고, ICT를 기반으로 에너지·농생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전남의 강점인 농업·수산업·축산업의 권역별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 과학영농단지 400개 조성, 친환경농식품 6차산업지구 조성, 해조류 식품산업 육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정책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천혜의 자연자원,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이점 등 전남의 자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도 절실하다. 김 당선인은 6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남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 문제와 한전공대 입지 확정 등 광주시와 상생협력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은 무안공항 활성화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다르다. 이전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 차원에서 관련 기관은 물론 이전 예정후보지 주민들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전 후보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서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한다면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지역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한전공대 입지도 광주시와 면밀하게 준비하고 솔직하게 대화해 확정해야 한다.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인 실리콘밸리와 중관촌은 그 중심에 스탠포드나 칭화대 같은 연구중심의 대학이 있다. 한전공대도 마찬가지다.

김 당선인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탄생으로 전남은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며 "전남발전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의 완수를 뒷받침하고 '전남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와 김영록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 차이로 각각 광주시장, 전남지사에 당선된 것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광주·전남의 표심이 또 한 번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고, 호남 인사를 중용한 문 대통령에 대한 호남민의 기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고스란히 표심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명부 유출, ARS 안내 음성녹음 파일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가 고스란히 광역단체장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각각 대통령 직속 일자리부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내면서 문 대통령과 호흡을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남재 시사평론가는 "높은 지지율로 이 당선인이 승리한 것은 민주당의 지지가 광주시장 선거에서도 이어진 결과다"라 분석했다.

13일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13일 전남지사로 당선된 김영록 지사가 부인인 정라미 여사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국세청장·장관·국회의원 거쳐…세번째 도전만에 시장 당선

이용섭은 누구

지난 1951년 함평의 농사꾼의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이 당선자는 자신을 '흙수저'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대학 재학 중인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2000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과 세제실장을 거쳐 2002년 국민의 정부 시절 관세청장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인 2003년에는 검찰총장·경찰총장과 함께 3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리는 국세청장에 올랐다. 2006년에는 행자부 장관에 취임해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정부 혁신에 앞장섰다. 행자부 장관 취임 8개월만인 같은해 12월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제 18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을)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 당선자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고향 선배인 강운태 후보에게 경선에 지면서 첫 시장 도전에 실패했다. 이어 2012년 1·15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장을 내일었다. 국회의원직 사퇴와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으로 광주시장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면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맡아 광주시장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 도전만에 광주시장으로 당선되는 기쁨을 맛봤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군수부터 장관까지 지낸 정통행정관료 출신 첫 전남도지사

김영록은 누구

민선 전남도지사 가운데 정통 행정관료 출신은 김영록(63) 당선인이 처음이다. 초대 허경만 지사는 국회부의장을 지낸 거물 정치인이었고, 박태영 지사는 금융인 출신, 박준영·이낙연 지사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었다.

김 당선인은 30대에 강진군수를 역임하는 등 전남 일선 시·군과 전남도, 중앙정부에서 줄곧 경험을 쌓다가 마침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올랐다. 풍부한 행정·국정 경력과 재선 국회의원 경험은 전남도정을 이끄는데 커다란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가 고향인 김 당선인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전남도청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내무부를 거쳐 1994년 39세의 나이로 강진군수에 부임했고, 이듬해에는 완도군수를 역임하는 등 관선 군수를 두 차례 지냈다.

전남도에서는 경제통상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을 거쳐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자치행정국장 재임때 일찌감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내 전국 최초로 신생아수당을 도입했다.

김 당선인은 제18대 총선에서 해남·진도·완도에 무소속으로 출마,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18·19대 연거푸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주로 국회 농식품위원회와 농해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농도 전남을 대변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에 밀려 낙선했다. 절치부심 끝에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 중앙선거대책본부 공동 조직본부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부인 정라미 씨와의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